

벤투호, 이강인 포함된 '9월 A매치 명단 발표

한국 축구 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이 13일 코스타리카, 카메룬과의 9월 A매치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에는 손흥민과 이강인을 포함해 26명의 이름이 들어있다.

13일 '인터풋볼'에 따르면 한국 대표팀은 오는 9월 23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코스타리카, 2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카메룬과 평가전을 치른다. 벤투호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와 함께 H조에 속했다. 이에 벤투호는 6월부터 친선경기를 통해 대륙별로 가상 상대를 선정하여 담금질에 나섰다. 6월 4차례의 평가전에서 브라질(1-5 패), 칠레(2-0 승), 파라과이(2-2 무), 이집트(4-1 승)를 만나 2승 1무 1패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9월 2연전은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최종 모



▲ 2021년 3월 일본전 이후 오랜만에 발탁된 이강인. 사진=대한축구협회(KFA)

의고사다. 코스타리카는 가상의 우루과이, 카메룬은 가상의 가나다.

한국은 코스타리카 상대로 9전 4승 2무 3패를 기록했다. 카메룬을 상대로는 4전 2승 2무다.

평가전에 나설 선수들을 포지션별로 보면 공격진에는 황의조, 조규성, 손흥민, 황희찬, 양현준 등이 발탁됐고, 미드필더에는 황인범, 이재성, 정우영, 이강인 등이 뽑혔다. 수비진에는 김민재, 김

영권, 김진수, 김문환 등이 이름을 올렸고, 골키퍼진에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이 포함됐다.

이강인은 2021년 3월 일본전 이후 오랜만에 발탁됐고, 김민재는 6월 발목 뺏조각 제거 수술로 제외됐다가 이번에 합류했다. 양현준(20·강원FC)은 처음으로 대표팀에 선발됐다.

고진영, 상금왕 4연패·세계 1위 '흔들' 손목 부상으로 한달 결장

여자 골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27, 사진)이 손목 부상으로 약 한 달 이상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다이제스트는 이날 "고진영이 왼쪽 손목 부상으로 10월 초까지 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8월 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CP오픈에 출전했던 고진영은 지난 15일 개막했던 어메이징크리 포블랜드 클래식에 불참했다. 포블랜드 클래식은 지난해 고진영이 우승한 대회이다. 고진영은 9월에 이어지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과 어센던트 LPGA에도 불참한다. 어센던트 LPGA도 고진영이 지난해 우승한 대회다.

고진영이 복귀를 목표로 하는 대회는 10월 20일 강원



도 원주에서 개막하는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다.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역시 지난해 고진영이 우승했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상금 13위(121만346달러)에 올라 있다. 시즌 막판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우는 고진영은 LPGA 투어 상금왕 4연패 도전이 쉽지 않아졌다.

세계 랭킹 1위 수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진영은 올해 2월 초부터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2위 벨리 코다(미국)가 고진영이 빠진 사이 좋은 성적을 내면 추월이 가능하다.

고진영은 세계 1위를 총 147주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의 158주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사진=golfdigest.com

다저스, NL 서부지구 우승 확정



▲ 파닉스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승리 후 라커룸에서 기뻐하고 있는 다저스 선수들. 사진=pasadenastarnews.com

LA 다저스가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NL) 서부지구 정상에 올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다저스는 전날 애리조나주 파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MLB)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에이스 커쇼의 호투에 힘입어 4-0으로 승리를 거두며 98승 43패를 기록, 남은 정규 시즌 21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NL 서부지구 1위를 확정했다. 커쇼는 이날 7이닝 동안 5개의 삼진을 속아내며 애리조나 타선을 무실점으로 봉쇄했다. 그가 상대 타선에 허용한 것은 안타 2개와 볼넷 1개가 전부였다.

다저스와 지구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78승 64패)의 격차는 20.5경기다.

이날 지구 우승은 최근 10년 동안 9번째이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8시즌 연속 지구 정상에 섰던 다저스는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밀려 지구 2위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다저스는 2년 만에 지구 정상에 복귀했다. 다저스는 이날 현재 MLB 30개 구단을 통틀어 가장 높은 승률(0.695)을 기록 중이다.

이제 다저스의 남은 목표는 내셔널리그 전체 승률 1위를 굳혀 포스트시즌 디비전시리즈에서 좀 더 손쉬운 대진표를 받는 것이다. 리그 승률 2위인 뉴욕 메츠(89승 54패)와는 10경기나 격차가 벌어져 있어서 남은 기간 승률 5할만 유지해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Home Remodeling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